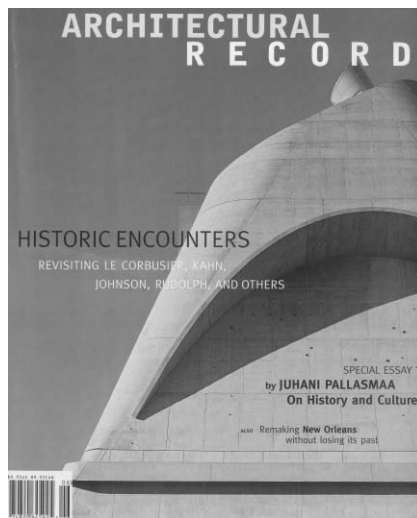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u
新建築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지의 2007년 6월호는 “역사는 현재이며, 그것이 바로 각각의 세대가 역사를 새로 쓰는 이유이다 (History is the present, that's why every generation write it anew)”라는 E.L. Doctorow의 경구로부터 시작한다. 오늘날 건축 사학은 베니스터 플레처의 교조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현재의 건축계를 자극할 만한 담론들을 이전의 건축으로부터 재추출하고자 하고 있다. 요즘의 건축 또한 오래된 건축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모색하여 개조와 보존을 지속가능성과 연계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아래 Record지는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시사하는 프로젝트들을 다루고 있다. 르 코르뷔제의 원안으로부터 수십년의 격차를 가지고 완성된 St. Pierre 예배



Behnisch Architekten - Haus im Haus

당과 리노베이션의 현실적 수요와 건축적 의미 창출을 다루는 런던의 Roundhouse의 리노베이션 계획, 어느 부분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함부르크의 Haus im Haus(house in House) 계획 등은 모두 역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더니즘 세대의 노력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다. 반면 샌디에고 현대미술관 같이 이전의 역사적 요소에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원안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더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 또한 빼놓지 않고 소개함으로써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보존과 보전의 관점에서 한 시대를 품었던 건축물들이 인위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한다. 폴 루돌프의 1972년의 고전에 오를만한 주택과 메타볼리즘 진영에서는 드물게 빛을 본 키쇼 쿠로카와의 캡슐호텔이 처한 현실은 건축의 의미와 사회적 소명 사이에 여러 가지 상념을 일으키게 된다. 그 자체가 기록(record)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관인 혹은 전달자의 입장에 머무르고 있는 현 Record지

의 고민이 솔직담백하게 드러난 제호인 셈이다.

■ Books

역사에 대한 고찰은 그 대상의 보전이 전제되어 있을 때 깊이와 폭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도시적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제인 제이콥스(『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의 저자)의 평전과 그녀가 사랑한 도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서적이 소개되고 있다.

Jane Jacobs, Urban Visionary by Alice Sparberg Alexiou. New Jersey : Rutgers Univ. Press, 2006

New York 2000 : Architecture and Urbanism Between the Bicentennial and the Millennium by Robert A.M Stern, David Fishman and Jacob Tilove. New York : Monacelli press, 2006

City of Collision: Jerusalem and the Principles of Conflict Urbanism edited by Phillip Misselwitz and Tim Rieniets New York : Birkhauser, 2006

Contemporary Public Space: Unvolumetric Architecture edited by Aldo Aymonino and Valerio Paolo Mosco, :Siraka, 2006

■ Features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 : 영원성에 대하여

필립 존슨의 많은 건축물 가운데에서도 그 자신이 살기 위해 만든 글래스 하우스(1949)는 시간의 흐름을 비껴서 있는 듯하



Philip Johnson - Glass House

다. 그 동안 좀처럼 방문을 허용하지 않던 이 작품이 6월 21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존슨은 2005년 98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전 일찍이 이 주택과 그에 딸린 47에이커(약 20만 평방미터)의 대지를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에 기부하였다. 그의 오래된 친구이면서 저명한 큐레이터이자 컬렉터였던 데이빗 휘트니가 사망하는 동안에도 존슨은 주변에 자그마한 건물들을 하나씩 지어 나갔다. 이 건물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새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공이 많이 들어갔다. 배수가 한 구멍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많았던 지붕은 콜타르로 간격을 메꾼 완제품 형태의 지붕으로 대체되었다. 26건에 이르는 문화보호협회(National trust)의 건축물보호 프로젝트의 경험이 훌륭하게 적용되어 많은 보수를 거쳤음에도 글래스 하우스는 처음 그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매우 값비싼 벽지를 가진셈이지” 라고 말했던 존슨의 의도가 여전히 확인되는 가운데 협회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가구들을 내부에 배치해 놓음으로써 이 작품이 모더니즘의 전반의 대표작(판스위스 주택)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밝힘과 동시에 모더니즘 후반까지 지속된 필립 존슨의 위상을 가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Project

건축사를 공부하다보면 건축이란 것이 끊임없는 스타일과 개념, 아름다움의 각축장에서 형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사고는 이전의 작업들을 완결된 과거로, 현재의 건축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기여도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건축은 자동적이고, 자기 참조적인 고유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미있는 창조적인 작업들은 반드시 문화의 연속성 아래에서, 특별한 수련의 과정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건축적 개념은 창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이전으로부터 계속되었던 인간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서부터 출발하여 물리적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실제로 위대한 많은 작품들이 그 안에 문화적 전통을 내화시키고 있음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카를로

스카르파의 Castelvecchio Museum (1958)은 그 섬세한 디테일과 물성, 공간구성에 있어 조각물에 있어서의 이탈리아적 성성을 변안하고 있으며, 알바 알토의 1952년의 시민회관 건물과 1953년의 주택건물은 지역의 기후에 기반한 전통들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또한 아스플렌트의 시청 증축 계획(1936, Gothenburg)은 원래 건물의 스케일과 리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다루는 여러 건물 역시 동일한 기반에서 사유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일말의 단절에 관련된 경험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 신축, 증축, 개축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축이 부정의 변증법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연속성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Église Saint-Pierre de Firminy-Vert (Saint-Pierre 예배당; 신축/ Firminy, France/ Le Corbusier and Jose Oubriere)

르 코르뷔제의 디자인이 그의 조력자이자 추종자였던 Jose Oubriere에 의해 43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대지는 생테티엔 근처의 루아레 계곡의 산업도시인 피르미니에 자리하고 있다. 근처에는 코르뷔제의 작품인 Youth Center(1965), 시립 스타디움(1966), 위니테 다비타송(1967) 등이 있어 멀지 않은 곳에서 카메라에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르 코르뷔제가 최초로 성 피에르 예배당의 디자인을 의뢰받은 것은 1961년이였다. 열추 2년동안 추진되었던 디자인은 1963년 중지되었고, 2년뒤 르 코르뷔제가 사망하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다. 1971년 단발적인 공사를 통해 기반과 기초, 쉼의 처음 고리까지 만들어진 이후 긴 시간동안 묻혀있던 프로젝트는 1999년 문화성의 인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2001년 다시 시공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6년 결국 완성을 보게 되었다. 종교 건축은 르 코르뷔제에게 작은 딜레마를 던지게 되는데,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건축을 진행한다”던 그의 신념과 건축물이 그의 ‘세속적’ 건축의 모더니티의 확신에 의해 ‘성소화’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코르뷔제의 고민



Le Corbusier + Jose Ouberie

은 그의 후반기의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들이 라폴레트와 룡상과 같은 종교건축물이라는 것로부터 좀더 심화되었고 이러한 점은 생 피에르 예배당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건물 매스의 추상적인 현수선적 포물선의 형태는 가톨릭 성당의 건축적 전통의 거부를 명백하게 보이고 있었음에도 여기에 전통적인 장미창이 포함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초기안), 이는 기술적 이유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제한을 통해 코르뷔제가 오로지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작은 구멍들을 생각해 밖으로써 그는 전통의 거부로서의 모더니스트라는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생 피에르 예배당은 르 코르뷔제 종교건축의 3부작으로

완결성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이를 원했던 건축사의 의도가 옳히 담겨 있는 '작품(oeuvre)'이다.

Oubrerie의 고유한 디자인은 입구를 마감디자인과 같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공간에 적용되었다. 2001년 자금조달과정에서 예배당 건설 협회는 원래의 안대로라면 평신도를 위한 기능 공간이었던 건물하부에 박물관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긴 시간을 거치면서 건설 기술과 법규의 변경을 통해 세부적인 변화가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코르뷔제와의 협업동안 결정되지 못한 입구와 지붕디자인에 있어 Oubrerie는 코르뷔제적이지만 원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 더욱 개념적이고 시각적인 해결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덮개를 씌우는 대신 Oubrerie는 격자무늬의 콘크리트 패널을 상부에 함몰시켜 단일체로서의 건물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보이드의 시사하는 원주의 곡선에 대한 감각을 살려낸 것이다.

입구를 디자인하면서 건축사는 개구부 없는 외벽에 램프를 달아놓는 방식을 취해 구조적 난점과 예배당 입구의 진입시의 몰입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리형태의 램프가 입구의 포티코와 접하는 지점에서는 오히려 넓은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건축물의 일반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신자가 일단 구부러진 형태의 램프로 접근하게 되면, 전시관으로도 접근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성소로 나가는 입구를 선택하여 들어오게 되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Oubrerie는 이 아이디어를 더욱더 심화시켜 경로의 끝을 솔리드월로 가리고, 몬드리안적 색채로 구성된 입구를 통해 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사는 코르뷔제와 디자인을 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뒤틀린 바닥을 고안해냈지만 오늘날 이 건물을 통틀어 가장 진보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었다. 렘콜하스의 1993년 Jussieu 대학 도서관 계획안에서 연속적이며 뒤틀리고 회전하는 바닥은 시애틀 도서관과 UN 스튜디오의 여러작품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코르뷔제의 마지막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The Roundhouse (공연장/리노베이션/ 런던/ John McAslan+Partners)

개축은 런던 북부 Camen 지역에 있는 원통형의 건물인 라운드하우스가 살아온 방식이다. 1846년 Robert Dockray가 고강도 벽돌을 사용하여 이 건물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이 건물은 단순히 증기기관차를 수용하고 회전시키는 시설 이상의 그 시대의 기술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 되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24개의 증기기관을 한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거대한 턴테이블은 10년도 안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증기기관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기차가 건물 길이보다 길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짧은 철도회전소로의 기능 이후에 이 빌딩은 진을 저장하는 술창고가 되었다. 힘든 시기가 다가왔다. 1964년 극작가 아놀드 웨스커는 이 건물을 대중 공연장인 센터 42로 변모시켰다. 지미 핸드릭스, 핑크 플로이드, 도어스, 제퍼슨 에어플레인, 데이빗 보위와 같이 말쑥꾸러기 로커들과 헤어나 오! 켈커타와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 센터 42는 자금난으로



Behnisch Architekten - Haus im Haus

인해 1983년 결국 문을 닫고 만다. 1996년 토켈 노먼은 390만 파운드로 극장을 사들이고, 기금을 마련하여 이 극장을 좀더 업그레이드된 공연장소로 만들고자 했다. 기나긴 자금 조성고 입찰과정을 통해 에릭멘델존의 아인슈타인 타워를 복원시킨 John McAslan+Partners에게 과업이 주어졌다.

결과물은 라운드하우스의 지난했던 과거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공연장소로 나타났다. McAslan의 유리로 덮은 증축부는 기존의 로툰다와 대비되어 강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건축사는 잠재적으로 돌립적인 진입 루트를 주 공연공간과 라운드하우스 스튜디오 안쪽으로 제공하고 있다. 로툰다 내부에서는 3피트 정도의 간격을 가진 환기공간에 의해 분리된 개구부를 통해 원형의 천장을 두어 기존 디자인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태양관은 이제 중앙의 지붕 랜턴 뿐만 아니라 이 링형태의 개구부로도 잘 들어오며 맨 처음부터 있었던 주철 기둥과 연결 구조부도 남아있다. (실제로 하중을 받지는 않는다.) 하중은 건축사가 제안한 망형태의 강구조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도시와 한참 떨어져 있음에도 라운드 하우스는 공연자가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차오르며, 요염하게 걸어다니는 장소로 남아 있게 되었다. 건축사 스스로가 말하듯 “끝내 주는 장소” 말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a+u



이번 6월호의 특집은 ‘금속을 두른 건축-Metal Skin’이다. 건축물의 외피는 최근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사용, 그리고 실험적 디자인이 집약된 총체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외피는 금속이 지니는 다양한 재료적 성질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와 구조물을 실현시켜 준다. 2004년 이후 완성된 금속을 몸에 두른 건축물들을 소개하여 금속 외피사용에 대한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특집은 오늘날 건축의 관심사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건축의 외피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금속재료’이다. 쎄퍼(Gottfried Semper)가 건축에서 외피에 대해 주목한 이후 근현대 건축사들은 건축물의 외피에 콘크리트, 철, 유리 등 새로운 소재들을 시험해 왔으며, 최근에는 ‘파사드 엔지니어링’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건축물의 외피는 디자인과 건축엔지니어링이 집약된 중요한 요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건축물에 철이 본격적으로 사용된지 100년도 넘었지만 금속재료가 구조체가 아닌 피막의 형태로 건축물을 뒤덮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 몇 십년 사이의 일이다. 특히 오늘날 금속의 피막은 매쉬의 형태로 빛을 적당히 투과하는 형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

델 회퍼 로아히(Wandel Hoefer Lorch)의 「뮌헨 유대인 센터(2004)」는 이와 같은 금속 피막을 잘 보여준다.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이 작품은 석재 마감의 견고한 기반위에 브론즈 매쉬를 포함한 금속과 유리로 된 상자모양의 지붕을 얹고 있다. 이 상자모양의 지붕은 여러 겹의 금속과 유리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안쪽에는 구조체 역할을 하는 그물망모양의 트러스가 위치하고 그 밖에 내외부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유리벽이 끼워진다. 그 밖에는 브론즈 매쉬를 부착하여 빛을 적절히 투과하면서 반사시키는 피막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외피와 금속 매쉬의 조합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의 「데모인(De Moines)공립



뮌헨 유대인 센터(2004)



데모인(De Moines)공립도서관(2006)

도서관(2006)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마찬가지로 구리로 된 매쉬를 끼워 넣은 커튼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촘촘한 구리 매쉬에 의해 햇빛을 받을 때 외부에서는 붉은 구릿빛으로 표면이 빛나고, 그늘진 면이나 야간에는 실내의 모습이 희미하게 투시된다. 또한 실내에서도 적당히 외부 경관을 보여주면서도 눈부심과 과도한 일사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건물의 외피는 때론 순수한 피막으로, 때론 구조체와 일체된 형태로 존재한다. 금속의 피막을 사용할 경우 금속의 피막은 얇으면서도 강한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스바르키텍처라(Suarquitectura)의 스페인 알리칸트(Alicante)시 「세르시오 카멜 플라자 트램 정류장(2005)」은 구조와 일체된 철제 외피를 통해 역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형태를 구현해 냈다. 트램 열차의 길이에 맞춰진 36m의 기다란 형태의 철제 박스에 총 800여개의 구멍을 내고 이를 한 쌍의 지지대와 또 한 쌍의 가느다란 인장력 지지봉만으로 지탱하는 이 구조물은 박스모양의 지붕이 마치 지면에서 중력을 거부하며 떠 있는 듯이 보인다. 캔틸레버구조로 지지되는 길이만 22m에 달한다. 신기하면서도 불안해보이기까지 하는 이 구조물은 철제 외피 안에 철제 트러스 구조를 숨겨 놓았다. 그러나 매끈한 표면에 구멍이 불규칙하게 배치된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덩어리로 보인다. 내부에는 조명



세르시오 카멜 플라자 트램 정류장(2005)

을 부착해 야간에는 거대한 야외조명의 역할도 한다. 철제 외피를 사용한 역동적 형태는 주택과 같은 작은 규모의 건물에서 더욱 효과를 발한다. ▶한국의 「안양 퍼블릭 아트 파크」 안에 세워져 더욱 관심이 가는 사미 린탈라(Sami Rintala)의 「엘리먼트 하우스(2006)」는 철제구조로 이루어진 정육면체의 박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슬아슬한 캔틸레버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금속재료의 다양한 재료적 성질은 강한 구조체로서 뿐만 아니라 가늘고 튼튼한 곡선의 형태를 만드는 데에도 적합하였다. 일찍이 아르누보시기에 금속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디자인들이 실험된 바 있는데, ▶프란시스 솔레(Francis Soler)의 「프랑스 문화부 청사(2004)」는 100년전 프랑스가 꽃피웠던 아르누보의 디자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구부러진 넝쿨과 같은 모양의 금속패널을 벽에 덧붙여 건물을 각종 외부로부터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화려하면서도 장대한 외관을 이루고 있다.

금속의 외피를 논하면서 프랭크 게리의 작품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호에도 프랭크 게리의 최신작, 스페인 엘시에고에 세워진 「호텔 마르쿠스 데 리스칼(2007)」이 소개되었다. 이 작품이 다른 게리의 작품과 비교해 독특한 점은 구부러진 금속의 외피에 색채를 가미했다는 점이다. 본래 파도 치듯 구부러진 금속의 막들은 주변의 경관을 반사하며 다양한 색을 내지만 이번 작품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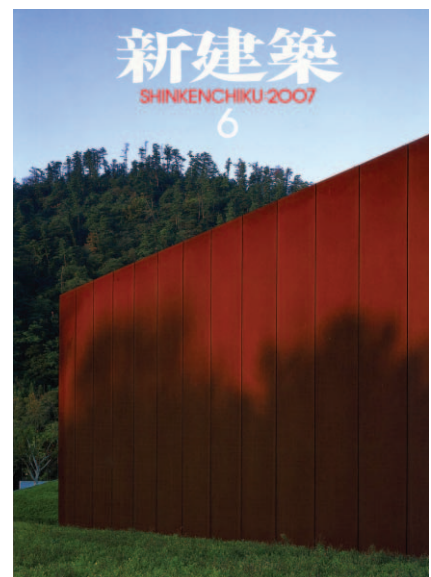
엘리먼트 하우스(2006)



호텔 마르쿠스 데 리스칼(2007)

보라색을 내는 금속의 띠가 하나 끼어들어가 있어 신선한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스티븐 홀은 「아이오와대학 미술 및 미술사학부」 건물에서 코르텐 강판을 외장재로 사용하고 건물의 내부에서도 부식된 코르텐강판과 동일한 색상의 페인트를 입힌 철골 및 철판을 내장재로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

新建築



이번 6월호에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후지모리교수의 작품과 후미히코마키 종합설계사무소의 「시마네현립 고대역사박물관」, 안도타다오의 「아브다비 해양박물관」 프로젝트를 비롯한 최근 설계를 마친 프로젝트들, 그리고 무사시공업대학의 새로운 「건축학과동」 등이 소개되었다.

■ 후지모리(藤森)의 건축

일본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소의 후지모

리 테루노부(藤森照信)교수는 40대 중반 건축물의 창작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후 20년간 일본의 근대건축을 연구해온 건축사가(建築史家)였다. 다실이나 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20년간 디자인 활동의 공백 이후에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그만의 개성과 상상력, 그리고 오랜 기간 건축사가로 활동해온 건축에 대한 남다른 성찰이 배어 있다. 그의 작품은 얼핏 보면 아마추어다운 면이 남아 있으며, 다소 소박 하면서 투박한 면이 발견되지만 그의 작품에는 세련된 현대 건축사들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력이 있다. 기존의 건축양식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디자인과 불에 그슬린 삼나무(야케스기:焼杉)와 같은 재료의 사용이나 민들레가 심겨진 지붕 등은 그의 디자인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은 분명 일본의 문화적 코드가 짙은 가운데 건축의 시원(始原)을 떠올리게 하는 건축에 대한 성찰이 깊게 배어 있다.

최근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설치되었던 그의 작품의 '귀국전'이 일본에서 열렸다. 이번 호에는 귀국전의 전시장 스케치와 함께 그의 신작「焼杉(야케스기)하우스」가 소개되었다. 야케스기하우스에서 후지모리교수가 주안점을 둔 것은 작품 제목에서 드러난 불에 그슬린 삼나무가 아니었다. 야케스기는 이미 「라무네 온천관」과 같은 작품에서 실험

해 본 터라 그에게는 익숙한 재료였다. 그의 테마는 목조주택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머릿속에 '경사지붕에 옆으로 긴 집'이라는 답을 떠올리고 있다. 여기에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동굴주거'라는 새로운 개념이 합해지게 되었다. 여기서 동굴주거는 깊고 음습한 주거가 아니라 크고 넓은 동굴의 입구를 가진, 절반은 외부로 열리고, 절반은 땅속에 들어간 밝은 공간이었다. 그는 프랑스 남부 페리골지방의 구석기시대 동굴 벽화를 보고 기존의 동굴주거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은 동굴주거의 개념을 거실과 식당, 주방이 통합된 공간에 적용하였다. 그는 여기에 벽난로를 추가해 원시의 주거가 담았던 요소들을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공간을 속복도를 갖는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평면과의 결합하여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부부의 주택으로 완성하였다.

■ 무사시공업대학 신(新)건축학과동

올해로 개교 78년을 맞는 무사시공업대학은 2004년부터 개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캠퍼스내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하였다. 2006년 가을에는 건축학과동이 준공되었다. 건축학과동은 건축학과만을 위한 건물로서 신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새로운 건축학과동의 설계시 주안점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건축분야간의 장벽을 없앨 것」, 2.「가변성을 확보할 것」, 3.「교육환경을 사회화할 것」. 무사시공업대학의 건축학과에는 우리나라 어느 건축(공)학과처럼 계획계, 구조계, 설비계, 환경계의 분야가 있다. 이 분야들의 연구공간은 문자 그대로 그 경계를 없앴다. 건축분야 내부의 각 연구분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분야별로 서로 간에 벽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학과 교수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칸막이와 개방된 연구공간에서 각 분야의 학생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 계획하였다. 이 건물의 특징은 이와 같은 오픈 플래닝에서 나타나는데, 학부생들을 위한 공간에도 거대한 제도공간인 「그랜드 갤러리」가 있다. 이는 스튜디오별로 수업이 진행되거나 할 때 적절히 파티션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며, 각종 전시와 강연등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들은 건축학과 학생들의 거대한 생활공간이다.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은 학생들의 다양한 직접적인 접촉을 만들어내고, 유기적인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설계는 무사시공업대학의 교수인 이와사키 케이치와 그의 연구실에서 담당하였다. (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귀국전



焼杉(야케스기)하우스



무사시공업대학 신(新)건축학과동